# 2층 남향집 나무 울타리 둘러 운치 살렸죠

■ 함평 '문화마을' 양래열·이은아씨 부부 전원주택

양래열·이은아 부부가 붉게 물든 배롱나무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함평읍에서 5분 거리인 학교면 월산리 '학교지구 문화마을'. 이곳에는 양래열(38)·이은아(39)씨 부부의 아담한 전원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하던 양씨는 근무지 이전을 신청해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인 함평에 정착했으며 지난해 5월 문화마을로 새집을 지어 이사했다.

대지 512㎡(155평), 건평 99㎡(30평) 규모의 2층 남향집으로 평당 300만원대의 건축비가 들었다. 집 내부는 목재위주로 자재를 사용했고, 외벽은 관리편의성을 고려해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했다. 집앞은 방부목 데크를 빙 둘러 운치를 살렸고, 나무탁자와 나무 담장도 재료를 구입해 손수 만들었다.

부부가 대도시에서 농촌 소도시로 생활터전을 옮기기로 결심한 데는 초등 1학년인 아들(8)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

양씨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고, 또 아토피도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는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가더라도 행여나 다칠세라 엄마가 따라 나가 지켜봐야 했으나, 시골에 온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나무에 오르는 등 나름의 놀이를 즐기고 성격도 더욱 활달해졌다.

## 내부는 목재·외벽은 '시멘트 사이딩' 마감

## 인천서 경찰공무원 생활 중 2005년 귀향

## 아들 아토피 낫고 성격 활달 "시골 잘 왔어요"

부인 이씨 역시 이사 초기에는 집주변이 어둡고 무서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으나, 차츰 이웃들과 얼굴이 익으며 여름철 삼겹살 파티나 동네 송년모임을 할 정도로 친숙해졌다.

마당가에는 자두, 대추, 살구, 감, 무화과, 블루베리 등 '먹고 싶은' 갖가지 유실수를 심었으며 한때는 흑염소를 길러보기도 했다.

아이는 직접 기른 과일을 따 먹으며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만족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도시에 비해 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관련 학원이 적어 아쉽기는 하지만, 초등 1학년 한 반이 12명에 불과해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해 주고 있어 만족스럽다.

함평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양씨는 바쁜 와중에도 비번일 때는 집안의 논 일과 밭 일을 거든다. 직접 만든 데크의 나무탁자에서 부부간에 차를 마시거나 가족들과 갖는 대화시간은 전원에서 갖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인천 토박이인 부인 이씨는 함평군에서 실시하는 6개월 과정의'지역 혁신리더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있는 대로 쫓아다니며' 이수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미처 몰랐던 농촌의 현실과 함께 발전 가능성에 눈뜨게 됐다.

요즘 이씨의 관심사는 '농산물 유통'이다. 인천의 지인과 친척들의 부탁으로 함평산 양파·마늘 등 농산물을 구해 택배로 부쳐주며 자연스럽게 유통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부인 이씨는 "농업인은 판로가 없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었다"며 "내년에는 직접 온라인으로 함평 농산물 판매의 매개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45억 들여 5만7천㎡ 개발… 단독주택 12채 들어서

■ 함평 '문화마을'은

함평 '학교지구 문화마을'은 함평군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 지난 2002~2003년 45억 5천80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기존마을 1만8천580㎡을 정비하고, 새로 3만8천705㎡의 단지를 조성하는 등 5만7천285㎡(1만7천329평)를 개발해 일반에 분양했다.

총 51필지를 분양해 현재 다양한 스타일의 단독주택 12채가 들어섰다.

입주예정자들을 살펴보면 타지역에서 온 경우가 40명으로 78%를 차지하며,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각각 11명, 상업 6명, 농업 5명 순이다.

당초 지역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각 시·군이 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촌공사가 위탁 시행자로 나서 부지를 조성했다.

2005년부터 농촌지역에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월산리 학교지구 문화마을 전경.

한국농촌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전남도내에 200여 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